



강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기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수학습센터
T. 033.250.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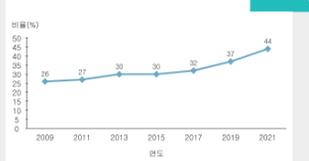


각국의 무기력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례

교육혁신본부 교수학습센터는 최근의 교육 동향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교육정책 방향을 '학습자중심 교수법'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교수지원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수학습센터 정기간행물인 다음+소식지에서는 매월 '학습자중심 교수법'의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소개 및 사례 등을 다룹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해외 교육 동향에 대한 기획 호를 준비하였으며 '각국의 무기력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의 무기력 학생 현황 및 지원 정책

학생들이 느끼는 무기력함 또는 의욕 부족의 양상과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극단적으로는 학교에 가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가 발표한 2003년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중 무려 40% 이상이 만성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학교교육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학생의 학습 동기보다 결과를 우선시하여 결과적으로 의욕을 낮추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Crotty, 2013). 미국 학생들의 무기력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불안정한 학습환경과 원격수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많은 학생과 교사들로 하여금 높은 피로감을 겪게 하였으며, 학생의 사회정서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던 다양한 과외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Bauld, 2021).



[그림1]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슬픔 및 절망의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의 비율(%) 출처 : CDC(2021)



[그림2]연방 교육부의 코로나19 회복 및 등교수업 재개 로드맵 출처 : <https://sites.ed.gov/roadmap/>

이에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힌 로드맵(roadmap)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mental health support)을 백신접종(vaccinations), 여름학기 보충교육(summer learning), 안전한 학교 재개방(safety reopen schools), 학습시간 손실 대응(address lost instructional time)과 함께 주요 5대 과제로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리고 2021년에 이를 위한 핸드북 '아동 및 학생의 사회, 정서, 행동, 정신건강 요구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여 배포하였다. 이 핸드북은 현재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 7가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한다. 다음 <표 1>은 위 핸드북이 제시한 7가지의 문제점과 제언을 요약한 것이다.

문제점	제언(가이드라인)
1. 학생 절반 인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 확인 필요	1. 모든 학생, 교직원,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문제 점검
2.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4천만 명의 학생들의 지원이 부족	2. 정신건강 문제(mental health issues)를 줄이기 위해 학교 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3. 기존 지원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함	3. 국가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실행력 강화
4.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부족하여 제공되지 않음	4.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
5. 원격 학습이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함	5. 원격 학습 및 대안적인 학습 방법 제공
6. 교직원 및 전문가들 간의 협업 부족	6. 모든 학생의 학습/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직원 협업
7. 대안적인 학습 방법 부족으로 인해 개인 맞춤형 학습이 어려움	7. 대안적인 학습 방법 제공 및 맞춤형 학습을 위한 도구 제공

[표1]연방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 정신건강 현황 및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처 : 연방 교육부(2021)

이와 더불어 학생의 정신건강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안이 많이 마련되고 있는데 주정부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ECS)가 2019년 이후 제정된 600개 이상의 주정부 법안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주정부가 최소 72개 이상의 학생 정신건강 지원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McCann, Fulton, & McDol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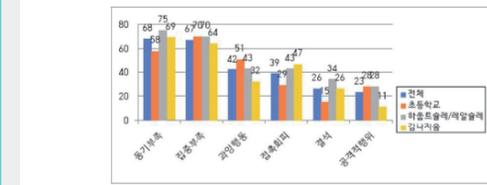
- 정신건강 및 웰빙 관련 교육과정 도입
- 정신건강 진단검사 확대
-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지원서비스 강화
- 정신건강 전문가 추가 확보(학생 1인당 전문가 비율 확대)
- 교직원 훈련 및 전문성 개발 강화
- 학교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위와 같은 지원정책들이 학생의 무기력 문제 혹은 학교생활 참여라는 단일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와 가정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결국 학생의 무기력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에서의 경험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학생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독일의 무기력 학생 현황 및 지원 정책

학업에 흥미가 없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학생들을 일컬어 '무기력 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학생이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에는 학교 스트레스, 학습 동기부족, 수업 집중력 부족, 부산한 행동, 도래 혹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회피, 더 나아가 학교거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학생의 무기력 현상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론조사 기관인 포사(Forsa)가 2021년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교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불규칙적인 등교 및 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Forsa, 2021)([그림 3] 참조).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학교심리상담(Schulpsychologie)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심리학적 방법과 전문 지식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지원한다. 학교심리상담은 행동, 학습, 사고, 감정 및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학교심리상담의 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각 주의 교육부처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학교심리상담은 각 연방 주에서 다르게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헤센 주의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 어떻게 무기력 학생을 포함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헤센 주는 <표 2>과 같이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3]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양상 출처 : Forsa(2021), 독일 학교 바로미터 : 2차 후속조사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운영	시행
안전한 장소 (Safe Place)	4~7학년	사회적·정서적 학습 경험지 학습 스페이스, 대안방	교실에서 학교심리상담사와 교사가 함께 운영	5학년-7학년, 교사9명, 대안방 2곳
임팩트 (IMPACT)	8~10학년	정신건강 리터러시 증진 스토리텔링 및 대안방	교실에서 학교심리상담사와 교사가 함께 운영	2학년
행동·그레서 박 (Verpack + ein Netz)	중·고학년	행동·그레서 박을 통해 심리적 위기에 대한 지식 습득, 심리적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	교실에서 운영, 학교심리상담사와 교사가 함께 운영	1학년(5-6학년)
마음의 문제 (MindMatters)	모든 학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수업 및 워크숍	교사와 프로그램 담당자가 함께 운영	학년별, 모듈별로 운영
함께 하기 (Gemeinsam kann man's)	5학년	행동·그레서 박을 통해 심리적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	교사	5학년의 프로젝트 수업

[표2]헤센 주 학교심리상담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출처 :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헤센 주 교육부) 홈페이지

#. 프랑스의 무기력 학생 현황 및 지원 정책

프랑스에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고 학업 중단(décrochage scolaire)에 이르는 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학업중단에 대응되는 정책은 2020년 유럽 전략(Stratégie Europe 2020)에 속하는 계획 중 하나로, 유럽의회에서는 2010년 학업 중단 포기 학생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해당 정책을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했고, 학업 중단 포기 학생의 비율을 2010년 12.6%에서 2019년 8.2%(약 95,000명)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학업중단을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및 학업 과정과 관련된 학교 내외의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층위에서 실행하고 있다.

먼저, 2014년부터 중앙 정부와 지역은 학위나 충분한 수준의 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법을 제정했고(직업교육, 취업 및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2014년 3월 5일 법- La loi n 2014-288), 2015년에 정부와 지역 연합이 학업중단 대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에서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진로 및 정보 담당 장학사를 지정해 학업중단대책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에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업중단에 대한 국가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는 원격학습으로 인해 학교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취약한 학업 상황에 놓이게 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들과 개별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학습지원 및 보조를 위한 튜터링, 보충학습, 특별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운영했다. ONISEP(Office National d'information sur les enseignements et les professions - 교육 및 직업에 관한 국립 정보청)에서는 관련 교육자료를 단위학교에 배포했다. 또한 도시취약지구정책에 따라 봉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특별 튜터링이 제공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미디어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하고 학교와 연락을 취할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MENSJ, 2020). 마지막으로 사후 대책 측면에서는 [표3]과 같이 학교 안과 밖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 운영제도	
학업중단 담당교원 (Référénts < décrochage scolaire >)	결석과 학업중단율이 높은 중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 담당교원을 임명해 학업중단과 관련한 조치를 책임지고 실행하도록 함
학업중단 예방그룹 (Groupe de prévention du décrochage scolaire-GDPS)	학생의 문제를 공동으로 파악하고, 학생의 생활 맥락에 맞는 종합적인 진단을 기준으로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구성
학업지속주간 (Semaine de la persévérance scolaire)	교원, 학부모, 외부 협력기관 및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학생들의 동기와 꿈을 들음.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학업중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11월과 3월 사이에 진행

학교 밖 운영프로그램	
열린학교 (Ecole ouverte)	정책에 의해 취약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취약교육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주거지 내에서 교육보충 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학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와 스포츠 활동 및 자원 체험활동을 함
교육연합 (Alliances < duvatives >)	학업중단 위험에 있거나 이미 중단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학교 내외의 여러 교육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건강, 사회보조, 학습결손보충, 학생의 학습 시간 및 학습 환경 조정 등과 같은 학교 안과 밖에서의 학생 생활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짐 (참여하는 외부 기관은 지자체, 청소년의 집, 아동사회복지센터,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다양하며, 학교 내 학업중단 예방그룹(GDPS)과도 협력)

[표3] 학교 안 밖의 교육프로그램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2022년 4월호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중 '각국의 무기력 학생 지원 대책 외' 참고